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이 기 준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국 194개 회원 대학의 총장님과 대학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국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참석해 주신 이한동 국무총리님과 내외 귀빈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국제세미나에 특별초청 발표자로 참석하여 주신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Dr. Samuel H. Smith 워싱턴 주립대 전임총장님, Dr. Gavin Brown 시드니 대학 총장님, Dr. Judith S. Eaton 미국 CHEA 총재님, Dr. John Leong Chi Yan 홍콩 평가인정기구 회장님, 그리고 최한선 대구가톨릭대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대학의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돌이켜 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성장해 온 지난 20여 년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주요한 변화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전환기적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된 '80년대 초는 대학교육이 엘리트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였고, 지금은 대중화 단계를 거쳐 보편교육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운영체제 측면에서 보면, 정부나 사학재단에 의한 관료적, 독점적 비민주적 운영 체제에서 민주적, 자율적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진통이 계속 되면서 대학 자율화가 한층 진전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오던 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통제 사항들이 상당 부분은 대학의 직접적인 자율사항으로, 또 일정한 공공적 부문들은 본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는 자율적 사항으로 이관되어 온 바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지금까지의 권두언 및 시론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2002. 4. 2. 13:00~20:00,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발표된 (1)기념사, (2)축사, (3)리셉션 축사로 대체하여 게재함.

아울러 정보화,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대학교육의 국가경쟁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과제로 제기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대학의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세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는 전환기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학 환경의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는 기초학문의 위기와 이공계 학생 수 감소라는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국가간 첨예한 경쟁논리에 따라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통한 경쟁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그 어느 때 보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대학의 자율을 보장받거나 이관받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대학 스스로가 성숙된 책임의식으로 대학운영의 모든 부문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대학의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맞아 우리 대학이 해결해 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든다면,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98년에 출간된 독일 교육연구부의 "델파이 조사연구보고"에 의하면 2020년에 요구되는 핵심 직업 능력으로 제일 첫 번째로 다국가의 문화이해 능력을 들고 있고, 다음으로 심리사회적(대인관계) 능력, 외국어 능력 등을 중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학교육의 국제화가 바라는 목표 또한 이러한 항목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비롯한 교육·연구체제의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의 대폭적인 수용, 국내외 대학간의 각종 교류 확대 등은 국제화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일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는 대학교육의 국제화는 물론 우리나라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화야말로 우리 국가의 대외적 경쟁력의 기반과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대학의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식기반사회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기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대학에 거는 국가 사회적 역할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성숙된 책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인사의 말씀에 기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이한동 국무총리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발표자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여 년 동안 회원 대학을 위해 헌신해 오신 대학교육협의회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